Check for updates

사회과학연구 제37권 4호(2026)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pp. 3-19
http://dx.doi.org/10.16881/jss.2026.10.37.4.3

청년층의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간접외상과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변화의 관계: 정신화된 정서성과 사회적 지지의 역할

권 종 순, 이 윤 정†

단국대학교, 원광대학교

본 연구는 세월호 참사와 10·29 이태원 참사를 모두 간접적으로 경험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간접외상과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변화의 관계에서 정신화된 정서성의 매개효과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20~39세 청년 300명의 자료를 SPSS 26.0과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간접외상과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변화 간 총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간접외상이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변화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부적으로 유의한 반면, 정신화된 정서성을 통한 간접효과는 정적으로 유의하여 비일관적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 지지는 간접외상과 정신화된 정서성의 관계를 유의하게 조절하지 않았으며, 조절된 매개효과도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재난을 반복적으로 간접 경험한 청년층의 심리적 적응에서 정신화된 정서성이 갖는 의미와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의 방향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사회적 재난, 간접외상,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변화, 정신화된 정서성, 사회적 지지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윤정, 원광대학교 의료상담학과 강사,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익산대로 460, E-mail : yiyj510@gmail.com
권종순, 단국대학교 상담학과 박사수료(제1저자)
■ 최초투고일 : 2026년 8월 15일 ■ 심사마감일 : 2026년 9월 15일 ■ 게재확정일 : 2026년 10월 15일

1. 서 론

현대 사회에서는 자연재난뿐 아니라 감염병, 대형 사고, 화재 등 다양한 사회적 재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개인과 사회 전반의 심리적 안녕을 위협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재난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되며 사회재난에는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 등의 대규모 사고뿐 아니라 국가핵심기반의 마비와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사회적 재난은 특정 유형의 대형 사고에 한정되지 않으며, 다양한 원인으로 광범위한 인적・물적 및 사회적 피해를 초래하는 재난을 포괄한다. 사회적 재난은 직접적인 피해를 넘어 공동체 전체가 동일한 사건을 공유하고 애도하며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사건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심리적 영향을 확산시키는 특성을 가진다(Quarantelli, 1998; Tierney, 2019). 최근에는 디지털 미디어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발달로 재난 현장의 영상과 사진, 피해자의 경험이 실시간으로 공유되면서 일반 시민 역시 재난 관련 정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환경에 놓여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타인의 외상 경험을 직접 또는 매체를 통해 반복적으로 접하면서 나타나는 심리적 반응은 간접외상(indirect trauma)으로 이해할 수 있다(Figley, 1995). 실제로 9・11 테러 이후 수행된 연구에서는 재난 현장에 있지 않았던 일반 시민들 역시 텔레비전과 인터넷을 통한 반복적인 재난 정보 노출을 통해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chlenger et al., 2002; Silver, Holman, McIntosh, Poulin, & Gil-Rivas, 2002). 국내에서도 간접외상 연구는 외상 생존자를 지속적으로 접하는 전문직 종사자와 조력자 중심의 연구에서(강지희, 이주희, 2017; 심기선, 주혜선, 안현의, 2016), 최근에는 디지털 미디어와 SNS를 통해 재난 장면과 피해자의 경험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일반 시민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서다영, 김은정, 2025; 이영주, 김시형, 2025; 최재광, 김해솔, 신은미, 송원영, 2024). 이는 사회적 재난의 심리적 영향이 직접적인 피해 경험에 국한되지 않으며, 간접적으로 재난에 노출된 일반인의 심리적 반응 역시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에서는 감염병, 대형 화재 등 다양한 사회적 재난이 발생해 왔다. 이 가운데 세월호 참사와 10・29 이태원 참사는 직접적인 피해자뿐 아니라 사건을 매체를 통해 접한 일반 시민에게도 심리적 영향을 미친 사회적 재난이다. 본 연구에서는 두 참사를 모두 매체를 통해 간접 경험한 청년층의 심리적 적응을 살펴보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 재난 가운데 이 두 사건으로 연구 범위를 한정하였다. 실제로 세월호 참사 이후 직접적인 피해 경험이 없는 청소년에게서도 간접외상 반응이 확인되었으며(손승희, 2014),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도 청년층이 재난 정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과정에서 간접외상과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서다영, 김은정, 2025; 이영주, 김시형, 2025). 특히 두 사건 사이에는 약 8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어 세월호 참사를 청소년기 또는 초기 청년기에 간접적으로 경험한 일부 청년들은 이후 10・29 이태원 참사를 다시 매체를 통해 접하였다. 10・29 이태원 참사는 희생자의 상당수가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층이었다는 점에서도 또래 청년들에게 높은 동일시와 정서적 관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었다. 청년기는 자율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회적 관계를 확대해가는 발달 단계이며(Arnett, 2000), 디지털 미디어와 SNS를 활발하게 이용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재난 관련 영상과 기사, 피해자의 경험 및 사회적 애도 과정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서로 다른 발달적 시기에 두 사회적 재난을 순차적으로 간접 경험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간접외상 수준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재난을 간접 경험한 청년들이 지각하는 심리적 변화와 이에 관련되는 개인적·사회적 자원을 이해하는 데 의미가 있다.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간접외상은 우울,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 어려움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홍다솜, 2021; Oz & Cona, 2024). 그러나 외상 경험 이후의 심리적 적응은 부정적 증상의 정도만으로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동일한 외상에 노출되더라도 이후의 심리적 반응과 적응에는 개인차가 나타나며(Bonanno, 2004), 외상 경험 이후 개인이 자신의 심리적 기능이 어떻게 변화하였다고 지각하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Regel과 Joseph(2010)은 외상 경험 이후 심리적 안녕감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변화 척도(PWB-PTCQ)를 개발하였으며, 이후 Joseph 외(2012)가 이를 타당화하였다.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변화는 외상 이후 현재의 안녕감 수준 자체보다 외상 경험 이전과 비교하여 자신의 심리적 안녕감이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어떻게 변화하였다고 지각하는지를 반영한다. 이는 외상 경험을 계기로 새로운 가능성이나 대인관계, 자기인식 등에서 긍정적인 성장을 경험하는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과 관련되면서도 구별되는 개념으로, 외상 이후 심리적 안녕감에서 나타난 긍정적 변화뿐 아니라 부정적 변화까지 함께 반영한다(Joseph et al., 2005). 따라서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간접외상 이후의 적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어려움의 정도뿐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심리적 안녕감이 이전과 비교하여 어떻게 변화하였다고 인식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적 재난의 간접경험은 슬픔, 분노, 무력감, 죄책감 등 다양한 정서를 유발할 수 있으며(한정수, 최주희, 이상옥, 김유리, 김성수, 2021), 이러한 정서를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하며 자신의 경험 속에서 의미화하는가는 외상 이후 지각하는 심리적 변화와 관련될 수 있다.

정신화(mentalization)는 자신과 타인의 행동 이면에 존재하는 사고, 감정, 욕구, 의도와 같은 마음 상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심리적 능력을 의미한다(Fonagy & Target, 1997). Jurist(2005)는 이러한 정신화 개념을 정서 경험의 영역으로 확장하여 정신화된 정서성(mentalized affectivity)을 제안하였다. 정신화된 정서성은 정서를 단순히 조절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기보다 정서가 발생한 원인과 의미를 이해하고 자신의 경험 속에서 재해석하는 과정을 강조한다. 이후 Greenberg, Kolasi, Hegsted, Berkowitz, Jurist(2017)는 정신화된 정서성을 정서 인식(identifying), 정서 처리(processing), 정서 표현(expressing)의 세 차원으로 개념화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정서 인식은 자신의 정서를 알아차리고 명명하며, 그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경험과 맥락을 성찰하는 과정이다. 정서 처리는 정서의 강도나 지속 등을 조절하고 복합적인 정서를 구분하며 다루는 과정이다. 정서 표현은 자신의 정서를 내적으로 다루거나 외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을 포함한다(Greenberg et al., 2017). 정신화된 정서성은 정서를 다룬다는 점에서 정서조절과 관련되지만, 정서의 발생과 강도 및 표현을 조절하는 데 초점을 두는 정서조절(Gross, 1998)과 달리 정서가 발생한 맥락과 의미를 이해하고 자신의 경험 속에서 재구성하는 과정까지 포함한다(Jurist, 2005). 이처럼 정신화된 정서성이 정서의 맥락과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이라면, 외상 관련 경험 역시 개인

이 자신의 정서를 이해하고 다루는 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다. Luyten과 Fonagy(2015)는 정신화가 스트레스와 정서적 각성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높은 각성 상태에서는 자신의 경험을 숙고하고 성찰하는 정신화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Greenberg 외(2017)의 연구에서는 최근 외상을 경험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정서 인식과 정서 표현 수준이 높았으며, 정서 처리에서는 유의한 집단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외상 심각도는 정서 인식과 정적으로 관련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외상 관련 경험과 정신화된 정서성의 관계를 일률적인 기능 저하로 설명하기 어렵고, 정서에 주의를 기울이는 측면과 이를 처리하는 측면을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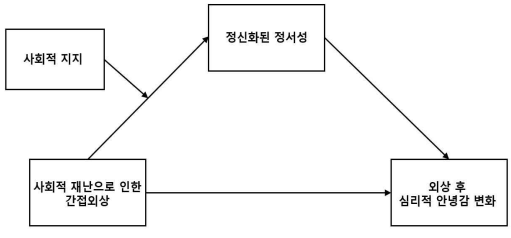
정신화된 정서성은 심리적 안녕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Greenberg 외(2017)는 정서 처리와 정서 표현이 삶의 만족과 정적으로 관련되며,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격 및 외상 관련 변인을 통제한 이후에도 정서 처리가 삶의 만족과 유의한 정적 관련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정서를 경험하는 정도뿐 아니라 경험한 정서를 다루는 방식이 심리적 적응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논의를 사회적 재난의 맥락으로 확장하면, 재난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이후 정서를 인식・처리・표현하는 능력, 즉 정신화된 정서성이 간접외상과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변화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간접외상이 정신화된 정서성과 어떠한 관련을 가지며, 이것이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변화로 이어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적 재난의 간접경험 이후 심리적 적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재난에 수반되는 정서를 개인이 어떻게 인식하고 다루는지뿐 아니라, 이러한 정서가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이해되는지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지각하는 정서적, 정보적, 평가적, 물질적 자원을 의미하며(House, 1981), 스트레스 상황에서 개인의 심리적 반응과 대처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관계적 자원으로 알려져 있다. Cohen과 Wills(1985)는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가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는 스트레스-완충 모형(buffering model)을 제시하였으며, Thoits(2011)는 사회적 관계와 지지가 개인의 인지적・정서적 반응과 대처 과정에 관여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관계 속에서 정서적 안정과 대처를 지원하는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Feeney & Collins, 2015; Lakey & Orehek, 2011), 외상에 노출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종합한 Brewin, Andrews, Valentine(2000)의 메타분석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부족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와 관련된 위험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Ozer, Best, Lipsey, Weiss(2003)의 메타분석에서도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의 중요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나, 외상 이후 심리적 적응에서 사회적 지지의 역할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외상 이후의 심리적 적응을 이해할 때 개인의 외상 경험뿐 아니라 이용 가능한 사회적 자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뒷받침한다. 외상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와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의 관계에서 정서조절의 매개효과가 보고되어, 사회적 지지가 외상 이후 정서를 다루는 과정과도 관련될 수 있음이 제시되었다(Kline & Palm Reed, 2021). 이러한 연구들은 사회적 지지가 외상 이후의 결과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뿐 아니라, 외상 경험에 수반되는 정서를 이해하고 다루는 과정과도 관련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사회적 지지가 간접외상과 정신화된 정서성의 관계에 함께 고려되어야 할 이유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정서를 성찰하고 다루는 과정이 개인에게 이용 가능한 관계적 자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Feeney와 Collins(2015)는 관계적 지지가 역경에 대한 대처와 이후의 적응을 지원하는 대인관계적 과정임을 설명하였다. 또한 Greenberg 외(2017)의 연구에서 외상 이후 자신의 경험을 타인에게 털어놓는 정도는 정신화된 정서성의 정서 표현과 정적으로 관련되었는데, 이는 경험을 공유하는 관계적 맥락이 정서를 다루는 과정과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성찰적 정신화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설명(Luyten & Fonagy, 2015)과 관계적 지지의 대처 지원 기능을 함께 고려하면, 사회적 지지는 간접외상에 수반되는 정서적 부담 속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다루도록 돕는 조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지지 자원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고 지각하는 경우에는 간접외상 수준이 높더라도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를 표현하고 숙고할 여지가 유지될 수 있는 반면, 지지 자원이 부족하다고 지각하는 경우에는 간접외상에 수반되는 정서적 부담이 커질수록 정서를 성찰하고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는 정신화된 정서성과 전반적으로 관련되는 자원일 뿐 아니라, 간접외상 수준에 따라 정신화된 정서성이 달라지는 정도에도 관여하는 조건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이는 관련 이론과 선행연구를 사회적 재난의 간접경험이라는 새로운 맥락으로 확장한 것으로, 본 연구는 이 경로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접외상과 정신화된 정서성의 관계가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 나아가 이러한 차이가 정신화된 정서성을 통해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변화로 이어지는 경로의 차이로도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으며,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 연구문제 1. 청년층의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간접외상과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변화의 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간접외상과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변화의 관계에서 정신화된 정서성의 매개효과는 유의한가?
- 연구문제 3.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간접외상이 정신화된 정서성을 통해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변화로 이어지는 간접효과는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가?



<그림 1> 연구 모형

2. 방 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세월호 참사와 10·29 이태원 참사를 모두 간접적으로 경험한 20~39세 청년층이었다. 참여자는 온라인 리서치 전문업체의 패널 가운데 세월호 참사와 10·29 이태원 참사를 모두 뉴스, 인터넷 기사, 텔레비전, SNS 등의 매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성인을 대상으로 모집하였으며, 자료수집은

2023년 5월에 이루어졌다.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안내한 후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최종 분석에는 총 300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150명(50.0%)이었으며, 연령은 20대와 30대가 각각 150명(50.0%)이었다. 거주지역은 서울 151명(50.3%), 경기 149명(49.7%)이었다.

2) 측정도구

(1)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간접외상 척도

본 연구에서는 허연주와 이민규(2017)가 개발한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간접외상 척도(Indirect Trauma Scale of Social Disaster: ITSSD)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사회적 재난을 여러 매체를 통해 반복적으로 간접 경험하면서 나타나는 심리적·행동적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이다.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의 대응 반응, 가해자에 대한 반응, 세상에 대한 불신 반응, 증상 반응의 4개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0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4점(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간접외상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척도 개발 당시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95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93이었다.

(2)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변화 척도

본 연구에서는 Regel과 Joseph(2010)이 개발한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변화 척도(Psychological Well-Being-Post-Traumatic Changes Questionnaire; PWB-PTCQ)의 한국판을 정아름과 김종남(2016)이 타당화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한국판 척도는 자신과 세상에 대한 변화와 인생관 및 대인관계의 변화의 두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총 16문항이다. 각 문항은 외상 경험 이전과 현재를 비교하여 심리적 안녕감의 변화 정도를 1점(사건 전에 훨씬 더 그랬다)부터 5점(사건 전에 비해 현재가 훨씬 더 그렇다)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외상 이후 심리적 안녕감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였음을 의미하며, 점수가 낮을수록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였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세월호 참사와 10·29 이태원 참사 중 특정 사건을 기준 사건으로 지정하지 않았으며, 참여자가 두 사건의 간접경험 이후 자신의 심리적 안녕감 변화를 회고적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정아름과 김종남(2016)의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Cronbach's α는 .94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92였다.

(3) 정신화된 정서성 척도

본 연구에서는 Greenberg 외(2017)가 개발하고 안명희와 정유선(2023)이 한국어판으로 타당화한 한국판 정신화된 정서성 척도(Korean Mentalized Affectivity Scale; K-MAS)를 사용하였다. 정신화된 정서성 척도는 정서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정서 식별, 정서를 조절하고 의미화하는 정서 처리, 그리고 정서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정서 표현의 세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총 5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7점(매우 그렇다)까지의 7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화된 정서성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안명희와 정유선(2023)의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Cronbach's α는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88이었다.

(4) 사회적 지지 척도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박

지원(1985)이 개발하고 김연수(1995)가 수정・보완한 사회적 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총 25문항이다.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박지원(1985)의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Cronbach's α는 .94였고, 김연수(1995)의 연구에서도 .94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97이었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6.0 프로그램과 Hayes(2022)의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산출하여 정규성 가정을 확인하였다. 또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고, 변인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간접외상이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성별과 연령에 따른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변화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정신화된 정서성의 매개효과는 Hayes(2022)의 PROCESS macro Model 4를 사용하여 검증하였으며,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는 Model 7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매개효과와 조절된 매개효과의 유의성은 5,000회의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여 확인하였으며,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3. 결 과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각 변인의 평균은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간접외상 2.38점(SD=.69),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변화 3.55점(SD=.63), 정신화된 정서성 3.48점(SD=.49), 사회적 지지 3.29점(SD=.73)으로 나타났다. 또한 왜도는 -.61～-.13, 첨도는 .42～.68의 범위로 나타나 모든 변인의 분포가 정규

<표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구분	1	2	3	4
1.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간접외상	1			
2. 정신화된 정서성	.157**	1		
3.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변화	-.036	.601***	1	
4. 사회적 지지	-.044	.360***	.309***	1
평균	2.38	3.48	3.55	3.29
표준편차	.69	.49	.63	.73
왜도	-.61	-.13	-.52	-.35
첨도	.42	.66	.68	.44

***p<.001, **p<.01

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간접외상은 정신화된 정서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r=.157, p<.01),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변화 및 사회적 지지와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ps>.05).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변화는 정신화된 정서성(r=.601, p<.001)과 사회적 지지(r=.309, p<.001) 모두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정신화된 정서성과 사회적 지지 간에도 유의한 정적 상관이 확인되었다(r=.360, p<.001). 성별과 연령에 따른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변화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남성(M=3.52, SD=.68)과 여성(M=3.58, SD=.58)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t=-.854, p=.394), 20대(M=3.54, SD=.70)와 30대(M=3.56, SD=.55) 간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305, p=.761).

2)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간접외상과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변화의 관계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간접외상과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변화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분석 결과,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간접외상은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변화와 유의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β=-.036, t=-.617, p=.538).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F=.380, p=.538), 설명력은 0.1%(R^2=.001)로 나타났다.

3) 정신화된 정서성의 매개효과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간접외상과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변화의 관계에서 정신화된 정서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간접외상은 정신화된 정서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β=.157, t=2.746, p=.006),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변화에 대한 총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β=-.036, t=-.617, p=.538). 그러나 정신화된 정서성을 함께 투입한 결과,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간접외상은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변화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β=-.133, t=-2.878, p=.004), 정신화된 정서성은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변화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622, t=13.413, p<.001). 정신화된 정서성의 간접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4를 이용한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정신화된 정서성을 통한 간접효과는 .0967이었으며, 95% 신뢰구간(LLCI=.0194, ULCI=.1821)에 0이 포함되지 않아 정신화된 정서성의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정신화된 정서성을 통한 간접효과는 정적이었던 반면, 정신화된 정서성을 통제한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간접외상의 직접효과는 부적으로 나타나 두 효과의 방향이 서로 상반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간접외상과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변화의 관계

경로	R^2	F	B	SE	β	t	p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간접외상 →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변화	.001	.380	-.035	.057	-.036	-.617	.538

<표 3> 정신화된 정서성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B*	*SE*	*β*	*t*	*p*	*F*
1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간접외상	정신화된 정서성	.157	.057	.157	2.746	.006	7.54
2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간접외상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변화	-.035	.057	-.036	-.617	.538	0.38
3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간접외상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변화	-.132	.046	-.133	-2.878	.004	90.26
	정신화된 정서성		.616	.046	.622	13.413	<.001	

<표 4> 정신화된 정서성의 매개효과에 대한 부트스트래핑 검증 결과

효과	*B*	*SE*	95% CI	
			LLCI	ULCI
총효과	-.035	.057	-.147	.077
직접효과	-.132	.046	-.222	-.042
간접효과	.097	.041	.019	.1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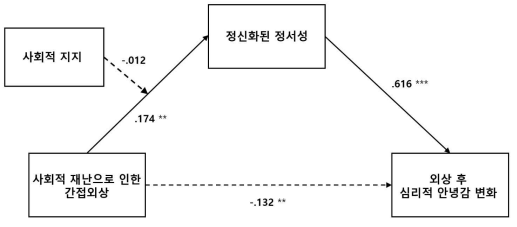
4)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간접외상과 정신화된 정서성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와 이에 따른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간접외상(*B*=.174, *SE*=.053, *t*=3.256, *p*=.001)과 사회적 지지(*B*=.365, *SE*=.053, *t*=6.827, *p*<.001)는 각각 정신화된 정서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간접외상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항은 정신화된 정서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012, *SE*=.046, *t*=-.250, *p*=.803). 또한 PROCESS macro Model 7을 이용하여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조절된 매개지수는

<표 5>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비표준화 계수		*t*	*p*	LLCI	ULCI
		B	*SE*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간접외상	정신화된 정서성	.174	.053	3.256	.001	.069	.279
사회적 지지		.365	.053	6.827	<.001	.260	.470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간접외상 × 사회적 지지		-.012	.046	-.250	.803	-.102	.079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간접외상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변화	-.132	.046	-2.878	.004	-.222	-.042
정신화된 정서성		.616	.046	13.413	<.001	.526	.706

-.007이었으며, 부트스트랩 95% 신뢰구간(LLCI =-.079, ULCI=.059)에 0이 포함되어 조절된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종 연구 모형의 경로계수는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그림 2> 최종 연구 모형 경로계수

4. 논 의

본 연구는 세월호 참사와 10·29 이태원 참사를 모두 간접적으로 경험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간접외상과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변화의 관계에서 정신화된 정서성의 매개효과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간접외상과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변화 간의 총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정신화된 정서성을 통한 간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정신화된 정서성을 통한 간접효과는 정적인 반면, 정신화된 정서성을 통제한 간접외상의 직접효과는 부적으로 나타나 서로 상반된 방향을 보였다. 한편, 사회적 지지는 정신화된 정서성과 유의한 관련을 보였으나 간접외상과 정신화된 정서성의 관계를 조절하지 않았으며, 조절된 매개효과 역시 유의하지 않았다. 주요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간접외상과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변화 간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간접외상의 정도가 사건 이전과 비교한 심리적 안녕감의 변화와 단순한 선형적 관계를 보이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변화는 외상 이후의 현재 안녕감 수준 자체가 아니라 사건 이전과 비교하여 개인이 지각한 심리적 안녕감의 변화 정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간접외상 경험의 정도가 높더라도 심리적 안녕감이 일관되게 긍정적 또는 부정적 방향으로 변화하기보다, 외상 경험 이후의 다양한 심리적 과정에 따라 변화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간접외상이 우울,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 어려움과 관련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홍다솜, 2021; Oz & Cona, 2024)와 외상 이후의 심리적 반응이 외상 노출 자체뿐 아니라 다양한 개인적·사회적 요인과 관련된다는 메타분석 결과(Brewin et al., 2000; Ozer et al., 2003)를 고려할 때, 사회적 재난 이후의 심리적 적응을 간접외상의 정도만으로 설명하기보다 그 이후의 심리적 과정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간접외상은 직접외상과 달리 재난 관련 정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피해자의 고통에 정서적으로 관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경험(Figley, 1995)으로, 미디어 노출 정도, 피해자와의 심리적 거리, 사건에 부여하는 의미 등에 따라 경험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간접외상과 심리적 결과의 관계에서 외상 후 인지가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이현화, 2025)와 세월호 참사 관련 재난 뉴스 노출과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의 관계에서 죽음불안과 외상 당시 및 외상 후 위기의 심리적 과정이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이홍표, 최윤경, 이재호, 이홍석, 2016) 역시 재난 노출 이후의 심리적 과정이 심리적 결과와 관련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 재난에 대한 간접외상 경험과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변화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재난 노출의 정도뿐 아니라 그 경험이 어떠한 심리적 과정을 거쳐 개인의 적응과 연결되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성을 보여준다.

둘째,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간접외상과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변화의 관계에서 정신화된 정서성을 통한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간접외상 수준이 높을수록 정신화된 정서성이 높았으며, 높은 정신화된 정서성은 보다 긍정적인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변화와 관련되었다. 반면 정신화된 정서성을 통제한 후에는 간접외상이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변화와 부적으로 관련되었다. 즉, 정신화된 정서성을 통한 정적 간접효과와 간접외상의 부적 직접효과가 동시에 나타났으며, 두 효과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면서 총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비일관적 매개양상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재난에 대한 간접외상 경험과 이후의 심리적 적응 사이에 하나의 일관된 방향만 존재하기보다, 그 경험과 관련된 정서를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하며 의미화하는가에 따라 서로 다른 관계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정신화된 정서성이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변화와 정적으로 관련된 결과는 정신화된 정서성이 다양한 심리적 적응 및 부적응과 관련됨을 보고한 선행연구들(우지인, 안명희, 2024; 정유선, 안명희, 2022; Goodwin & Luchner, 2023)과 맥을 같이하며, 정신화된 정서성이 높을수록 긍정적 심리적 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한 연구(Greenberg et al., 2017)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정신화된 정서성은 자신이 경험하는 정서를 인식하고 그 원인과 의미를 이해하며 이를 자신의 경험 속에서 통합하는 과정을 포함한다(Greenberg et al., 2017; Jurist, 2005).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간접외상 경험은 그 자체로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의 부정적 변화와 관련될 수 있지만, 재난으로 유발된 정서를 인식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며 자신의 경험 속에서 다루는 심리적 과정은 이와 다른 방향으로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변화와 관련될 수 있다. 이는 사회적 재난 이후의 심리적 적응을 간접외상의 정도만으로 설명하기보다, 재난 경험과 관련된 정서가 어떠한 심리적 과정을 거치는지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간접외상과 정신화된 정서성 간에 정적 관련이 나타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재난과 관련된 다양한 정서에 관여하는 정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이해하며 의미화하는 심리적 과정 역시 활발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간접외상 경험과 정신화된 정서성의 정적 관련을 이해해볼 수 있다. 특히 정신화된 정서성은 정서적 경험의 부재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한 정서를 알아차리고 그 의미를 이해하며 자신의 경험 속에서 통합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Jurist, 2005), 재난으로 인한 정서적 관여와 정신화된 정서성이 반드시 상반된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두 변인의 정적 관련은 사회적 재난에 대한 정서적 관여가 큰 경우에도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이해하며 의미화하는 과정이 함께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재난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청년층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개입에서도 재난 관련 정서를 단순히 감소시키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 자신이 경험하는 정서를 구분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며 자신의 경험과 연결하여 성찰하도록 돕는 접근이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사회적 재난과 같이 다양한 정서가 복합적으로 경험되는 상황에서는 정서의 강도를 낮추는 것뿐 아

니라 자신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그러한 정서가 자신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이해하도록 돕는 과정이 심리적 적응을 지원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와 조절된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는 정신화된 정서성과 유의하게 관련되었으나,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간접외상과 정신화된 정서성의 관계를 조절하지는 않았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정신화된 정서성과 관련되는 관계적 자원이지만, 간접외상 수준에 따라 정신화된 정서성이 달라지는 관계의 강도 자체를 변화시키는 조건적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가 외상 경험과 심리적 적응 간의 관계를 완충하는 것으로 보고한 선행연구들(김동순, 엄명용, 2020; 신은주, 김순규, 2025; 윤명숙, 박아란, 2016)과는 차이가 있으며,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간접외상 맥락에서 사회적 지지의 역할을 단순한 완충효과로만 설명하기보다 정신화된 정서성과 어떠한 방식으로 관련되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간접외상의 특성과도 관련하여 이해해볼 수 있다. 간접외상은 개인이 직접적인 재난 피해를 경험한 경우와 달리 매체 등을 통해 재난과 피해자의 경험에 노출되면서 나타날 수 있으며, 사회적 재난의 경우 개인의 주변 사람들 역시 동일한 사건과 관련된 정보와 사회적 분위기에 함께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주변으로부터 지각하는 일반적인 사회적 지지가 간접외상 경험에 따른 정서적 반응을 일관되게 완충하는 방식으로 작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사회적 지지와 정신화된 정서성 간의 유의한 관련성은 외상 맥락에서 사회적 지지가 정서를 다루는 과정과 관련된다는 선행연구(Kline & Palm Reed, 2021)와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정서를 표현하고 이해받으며 경험을 해석할 수 있는 관계적 맥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이해하며 의미화하는 정신화된 정서성과 관련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이러한 관련성은 간접외상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상호작용의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간접외상의 영향을 일률적으로 완충하거나 강화하는 방식보다는, 간접외상 수준과 관계없이 정신화된 정서성과 관련되는 자원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를 하나의 포괄적인 자원으로 보기보다 그 내용과 맥락을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사회적 지지는 정서적・정보적・물질적・평가적 지지를 포괄하는 전반적인 지각된 사회적 지지였다. 그러나 사회적 재난 이후 정서를 이해하고 의미화하는 과정에서는 전반적인 지지의 양보다 재난 경험을 타인과 이야기하고 정서적으로 확인받는 경험, 사건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관계, 자신의 경험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와 같은 보다 구체적인 관계적 경험이 중요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재난 이후 사회적 지지의 역할은 지지의 수준뿐 아니라 어떠한 지지가 누구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제공되고 경험되는지를 함께 고려할 때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약 8년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10・29 이태원 참사를 모두 간접적으로 경험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발달적 시기에 경험할 수 있었던 사회적 재난과 이후의 심리적 적응 과정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간접외상을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병리적 결과 중심으로 다루어 온 기

존 연구의 관점을 확장하여,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변화라는 적응적 측면에 주목하였다. 특히 간접외상과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변화의 관계에서 정신화된 정서성을 통한 유의한 간접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사회적 재난 이후 청년의 심리적 적응을 이해하는 데 정서를 인식하고 이해하며 의미화하는 과정이 중요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둘째, 본 연구는 사회적 재난에 간접적으로 노출된 청년층을 위한 상담 및 심리교육에서 정신화된 정서성을 고려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실천적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재난 이후 나타나는 외상 반응을 완화하는 것과 함께 재난 경험으로 유발된 정서를 인식하고 이해하며 자신의 경험 속에서 의미화하도록 돕는 접근이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 설계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변인 간 인과관계나 시간적 선후관계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간접외상과 정신화된 정서성 간에 정적 관련이 나타났으나, 이를 간접외상 경험이 정신화된 정서성을 높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향후 종단연구를 통해 사회적 재난에 대한 간접외상 경험과 정신화된 정서성,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변화 간의 관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참여자는 세월호 참사와 10·29 이태원 참사를 모두 간접적으로 경험한 청년층이었으나, 두 사건에 대한 간접외상 경험을 각각 측정하거나 두 사건의 누적적 영향을 구분하여 분석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두 사건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으며, 사건의 특성과 참여자가 각 사건을 경험한 발달적 시점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자료수집 시점을 기준으로 두 사건 간 회고 기간이 약 7개월에서 9년까지 상이하였다는 점에서 기억의 정확성이나 정서적 강도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변화 측정 시 세월호 참사와 10·29 이태원 참사 중 특정 사건을 기준 사건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참여자에 따라 심리적 안녕감 변화를 판단할 때 상정한 사건이 달랐을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두 사건 이외에 참여자가 경험했을 수 있는 감염병, 화재 등 다른 사회적 재난에 대한 간접노출을 별도로 측정하거나 통제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두 사회적 재난의 개별적 또는 누적적 영향으로 해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각 재난에 대한 노출 정도와 심리적 반응을 구분하여 측정하고,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변화의 기준 사건을 명확히 제시하여 반복적인 사회적 재난의 간접경험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심리적 적응과 어떠한 관련을 갖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간접외상과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난 관련 미디어 노출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및 심리적 거리, 이전의 외상 경험, 현재의 우울 및 불안 수준 등을 별도로 측정하거나 통제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은 간접외상과 외상 후 심리적 적응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관련 변인을 함께 측정하고 통제하여 변인 간 관계를 보다 정교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므로 사회적 바람직성이나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편향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변화는 사건 이전과 비교한 자신의 변화를 회고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측정되므로, 실제 시간에 따른 변화를 직접 측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적 측정을 통해 외상 전후의 심리적 안녕감 변화를 확인하거나 면

담, 행동관찰 등 다양한 측정 방법을 함께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는 20~39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므로 연구 결과를 다른 연령층이나 직접적인 재난 피해 경험이 있는 집단에 일반화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과 재난 경험 수준을 포함한 표본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변인 간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강지희 · 이주희 (2017). 아동상담자의 외상경험이 간접외상에 미치는 영향에서 상담자 변인의 조절효과. <한국놀이치료학회지(놀이치료연구)>, 20(4), 309-336.

김동순 · 엄명용 (2020). 화재 피해 노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가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노인복지연구>, 75(4), 61-90.

김연수 (1995). 정신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지지도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 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미간행).

서다영 · 김은정 (2025). 미디어 매체로 인한 간접외상후 스트레스 증상 및 관련 변인에 대한 연구: 이태원 참사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32(9), 1-31.

손승희 (2014). 사회적 사건에 의한 청소년의 간접외상 및 관련요인 연구: 세월호 사건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1(10), 269-294.

신은주 · 김순규 (2025). 사회복지종사자의 외상 경험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사회과학연구>, 36(2), 79-102.

심기선 · 주혜선 · 안현의 (2016). 정신건강 전문가의 재난지원활동 여부에 따른 공감만족, 소진, 간접 외상스트레스: 세월호 사건을 중심으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4(2), 113-139.

안명희 · 정유선 (2023). 한국판 정신화된 정서성 척도(K-MAS)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5(2), 413-440.

우지인 · 안명희 (2024). 자기애적 취약성이 신체화에 미치는 영향: 정신화된 정서성과 수동공격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25(6), 109-132.

윤명숙 · 박아란 (2016). 청소년 복합외상경험과 PTSD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검증.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4(3), 352-375.

이영주 · 김시형 (2025). 미디어를 통한 간접외상에 대한 탐색적 연구: 이태원 참사와 20~3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통계연구>, 30(2), 104-136.

이현화 (2025). 사회 재난으로 인한 간접외상과 분노, 불안, 우울의 관계: 외상 후 인지의 매개효과.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이홍표 · 최윤경 · 이재호 · 이홍석 (2016). 세월호 뉴스 노출을 통한 간접 외상의 심리적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2(3), 411-43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26). 법률 제21313호(2026. 1. 21. 일부개정, 2026. 7. 2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정아름 · 김종남 (2016). 한국판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변화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1), 195-224.

정유선 · 안명희 (2022). 부와 모의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와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기애적 취약성과 정신화된 정서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9(10), 267-293.

최재광 · 김해솔 · 신은미 · 송원영 (2024). 불안정 애착유형과 SNS정서전염이 간접외상에 미치는 영향: 10.29(이태원)참사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9(5), 765-785.

한정수 · 최주희 · 이상옥 · 김유리 · 김성수 (2021).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공감이 불안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위험지각과 간접외상을 통하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11), 609-625.

허연주 · 이민규 (2017).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간접외상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3(3), 381-407.

홍다솜 (2021). COVID-19로 인한 간접외상이 우울, 불안에 미치는 영향: 핵심신념 붕괴와 침습적 반추의 이중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Arnett, J. J. (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5), 469-480.

Bonanno, G. A. (2004). Loss, trauma, and human resilience: Have we underestimated the human capacity to thrive after extremely aversive events? *American Psychologist*, 59(1), 20-28.

Brewin, C. R., Andrews, B., & Valentine, J. D. (2000). Meta-analysis of risk factors for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trauma-exposed adul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8(5), 748-766.

Cohen, S., &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310-357.

Feeney, B. C., & Collins, N. L. (2015). A new look at social support: A theoretical perspective on thriving through relationship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9(2), 113-147.

Figley, C. R. (Ed.). (1995). *Compassion fatigue: Coping with secondary traumatic stress disorder in those who treat the traumatized*. Brunner/Mazel.

Fonagy, P., & Target, M. (1997). Attachment and reflective function: Their role in self-organizatio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9(4), 679-700.

Goodwin, A. M., & Luchner, A. F. (2023). Mentalized affectivity as a mediator between two forms of narcissism and self-compassion. *Psychoanalytic Psychology*, 40(4), 320-327.

Greenberg, D. M., Kolasi, J., Hegsted, C. P., Berkowitz, Y., & Jurist, E. L. (2017). Mentalized affectivity: A new model and assessment of emotion regulation. *PLOS ONE*, 12(10), e0185264.

Gross, J. J. (1998). The emerging field of emotion regulation: An integrative review.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2(3), 271-299.

Hayes, A. F. (2022).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

based approach (3rd ed.). The Guilford Press.

House, J. S. (1981). *Work stress and social support*. Addison-Wesley.

Joseph, S., Linley, P. A., Andrews, L., Harris, G., Howle, B., Woodward, C., & Shevlin, M. (2005). Assessing positive and negative changes in the aftermath of adversity: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Changes in Outlook Questionnaire. *Psychological Assessment,* 17(1), 70-80.

Joseph, S., Maltby, J., Wood, A. M., Stockton, H., Hunt, N., & Regel, S. (2012). The Psychological Well-Being－Post-Traumatic Changes Questionnaire (PWB-PTCQ): Reliability and validity.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4(4), 420-428.

Jurist, E. L. (2005). Mentalized affectivity. *Psychoanalytic Psychology*, 22(3), 426-444.

Kline, N. K., & Palm Reed, K. M. (2021). Betrayal vs. nonbetrayal trauma: Examining the different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emotion regulation on PTSD symptom severity.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13(7), 802-809.

Lakey, B., & Orehek, E. (2011). Relational regulation theory: A new approach to explain the link between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mental health. *Psychological Review*, 118(3), 482-495.

Luyten, P., & Fonagy, P. (2015). The neurobiology of mentalizing. *Personality Disorders: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6(4), 366-379.

Oz, I. T., & Cona, G. (2024). Impact of indirect trauma and disaster media exposure on psychological states and temporal processes: The case of 2023 Turkey earthquakes. *Clinical Psychology & Psychotherapy*, 31(6), e70008.

Ozer, E. J., Best, S. R., Lipsey, T. L., & Weiss, D. S. (2003). Predictors of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in adults: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29(1), 52-73.

Quarantelli, E. L. (Ed.). (1998). *What is a disaster? Perspectives on the question*. Routledge.

Regel, S., & Joseph, S. (2010). *Post-traumatic stress*. Oxford University Press.

Schlenger, W. E., Caddell, J. M., Ebert, L., Jordan, B. K., Rourke, K. M., Wilson, D., Thalji, L., Dennis, J. M., Fairbank, J. A., & Kulka, R. A. (2002). Psychological reactions to terrorist attacks: Findings from the National Study of Americans' Reactions to September 11. *JAMA*, 288(5), 581-588.

Silver, R. C., Holman, E. A., McIntosh, D. N., Poulin, M., & Gil-Rivas, V. (2002). Nationwide longitudinal study of psychological responses to September 11. *JAMA*, 288(10), 1235-1244.

Thoits, P. A. (2011). Mechanisms linking social ties and support to physical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52(2), 145-161.

Tierney, K. (2019). *Disasters: A sociological approach*. Polity Press.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rect Trauma from Social Disasters and Changes in Posttraumatic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Young Adults: The Roles of Mentalized Affectivity and Social Support

Jong-Soon Kwon, Yoon-Jung Lee

Dankook University, Wonkwang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 of mentalized affectivity and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rect trauma from social disasters and changes in posttraumatic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young adults who had indirectly experienced both the Sewol Ferry disaster and the October 29 Itaewon disaster. Data from 300 young adults aged 20-39 years were analyzed using SPSS 26.0 and the PROCESS macro.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total effect of indirect trauma from social disasters on changes in posttraumatic psychological well-being was not significant. Second, the direct effect of indirect trauma on changes in posttraumatic psychological well-being was significantly negative, whereas the indirect effect through mentalized affectivity was significantly positive, indicating an inconsistent mediation effect. Third, social support did not significantly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rect trauma and mentalized affectivity, and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was also not significant.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ignificance of mentalized affectivity in the psychological adjustment of young adults who had experienced repeated indirect exposure to social disasters, as well as the study's limitations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is discussed.

Keywords: Social Disaster, Indirect Trauma, Changes in Posttraumatic Psychological Well-Being, Mentalized Affectivity, Social Support